철학과 원칙이 있는 비상경영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언론사들이 공히 수익구조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파고 속에 CBS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6월부터 경영위기 돌파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속에 노조 역시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회사는 CBS 공동체의 노동조건 저하와 직원들의 고통 분담 요청 시 성실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의식에 따른 일괄적인 비용 삭감이 아닌 철학과 원칙이 있는 비용절감을 시행해야 한다. 노조는 향후 사측의 비상경영 방안 논의 시 아래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1. CBS는 콘텐츠 생산 기지임을 고려해 제작환경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동기 대비 적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원상회복 시기에 대한 조건도 설명한다.

3. 실본부장 등 경영진부터 경제위기 고통분담의 솔선수범을 보인다.

4. 임금 관련 해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한다.

5. 작가, 프리랜서 AD 등 비정규직 직군의 희생은 비상경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2020. 5. 21.

전국언론노조 CBS지부